

조선후기 설인귀 인식의 맥락과 문학적 반영의 의미*

엄태웅**

|| 차례 ||

- I. 서론
- II. 본론
 - 1. 조선후기 역사서 속 설인귀
 - 1) 『삼국사기』와 『동사강목』·『해동역사』의 인식 주체의 차이
 - 2) 『동사강목』과 『해동역사』 속 설인귀
 - 2. 당태종과 연개소문에 대한 상반된 인식
 - 1) 당태종
 - 2) 연개소문
 - 3. 조선후기 ‘설인귀’ 인식과 문학적 반영의 의미
 - 1) 소중화의식의 자족적 발현
 - 2) 문화적 자존감의 상상적 실현
 - 3) 영웅소설의 <설인귀전> 수용의 의미
- III.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다수의 영웅소설 작품들에서 설인귀 및 <설인귀전>의 영향이 확인된다는 선행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왜 유독 설인귀가 영웅소설 서사에 반영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2-A00081).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적·윤리적 가치관을 통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이 성행했던 당시의 대표적 역사서들 속에 등장하는 설인귀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에 주목했다.

18·19세기를 대표하는 역사서라 할 수 있는 『동사강목』과 『해동역사』 속 설인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당시 설인귀가 조선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주변 인물, 즉 당태종과 연개소문 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당태종에게는 우호적 시선이, 연개소문에게는 상당히 부정적 시선이 감지되었다. 이것이 역사 인식이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때, 이는 중화 계승 의식과 문화적 중화주의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조선이, 오랑캐 지역에 웅거했던 고구려보다는 중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나라의 시각에서 과거를 기억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영웅이 아닌 설인귀였을까. 본고는 그 이유를 중화를 계승하고자 했던 조선의 입장과 설인귀의 처지에서 보이는 유사성에서 찾았다. 설인귀는 변방 출신이지만, 중원의 위기를 구하는 영웅적 활약을 하는 인물로서, 그 모양새가 흡사 조선의 당시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설인귀전>이 화소의 차원은 물론 구조적 측면까지도 영웅소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영웅소설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윤리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웅소설의 성행은, 비교적 폭넓은 계층의 조선 사람들이, 중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른바 ‘윤리적 통속’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의 관계의 의미는 보다 더 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영웅소설의 형성과 전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윤리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 <설인귀전>, 영웅소설, 설인귀, 당태종, 연개소문, 『동사강목』, 『해동역사』, 윤리적 통속

I. 서론

이미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다수의 영웅소설에는 <설인귀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김태준¹⁾에 의해 <설인귀전>과 영

웅소설의 관련성이 제기된 이후, 둘의 관련 양상은 이명구,²⁾ 성현경,³⁾ 서대석⁴⁾ 등에 의해 계승·발전되었고, 성현경에 의해 제기된 서사구조의 관련성은 서대석의 논의에 이르러 상당 부분 구체화 되었다.⁵⁾ 실제로 지금까지 <설인귀전>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거론된 작품만도 <소대성전>, <용문전>, <장익성전>, <장풍운전>, <유충렬전> 등 남성영웅소설은 물론, <홍계월전>, <정수정전>, <황운전>, <이대봉전> 등의 여성영웅소설까지, 주요 영웅소설을 막론한다. 영웅소설과의 관계는 비단 <설인귀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汎 <설인귀전>’에 포함될 수 있는 <서정기>, <설정산살기>, <번리화정서전> 등의 속편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인 영향관계 속에 있다.

본고는 <설인귀전>이 영웅소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웅소설의 형성 그 자체가 <설인귀전>만을 계기로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국의 설인귀 관련 소설⁶⁾이 유입되어 <설인귀전>으로 재탄생하기 전에 몇몇 영웅소설은 이미 유통되고 있었다

1)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7.

2) 이명구, 『이조소설연구서설』, 『성대논문집』13, 성균관대학교, 1968.

3)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62·63, 국어국문학회, 1973 ;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 <소대성전> · <장익성전> · <설인귀전>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2, 한국고전문학회, 1974.

4) 서대석, 『군담소설과 중국소설』,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5) <설인귀전>은 <삼국지>와 달리 영웅적인 한 인물의 일생을 기술한 작품으로서 군담소설과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설인귀의 출생과 결혼 및 초년의 고난과 정동과정에서의 영웅적 활약 등은 모두 군담소설 주인공의 일생과 상통하는 성격이다. 서대석, 앞의 책, 302면.

6) <설인귀전>의 원작은 55회본 <說唐後傳>과 42회본 <說唐薛家府傳>이라는 중국 강사화본계 소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최소한 건륭3년(1738)에는 초간본이 나왔고, 후자는道光18년(1838년)에 전자로부터 갈라져 나온 신각본이다. 양승민, 『<설인귀전>의 소설사적 존재 의미』, 『우리어문연구』41, 우리어문학회, 2011, 391면.

는 실증적 자료들이 새롭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혹여 이러한 자료들이 새롭게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인귀전>은 곧 영웅소설의 모태’와 같은 식의 단선적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서사문학의 형성과 전개가 그 서사문학이 형성된 지역의 시공간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는 당연한 전제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영웅소설이 기왕에 조선에서 성행하던 서사문학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그 구체적인 면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직접적인 계승의 대상을 찾아야 하겠지만 - 의심과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 조선의 서사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의 관련성이 유독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설인귀전>이 영웅소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분명 <설인귀전>이 대다수의 영웅소설 작품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⁸⁾

7) 가령 <설저전>과 <이현경전>의 창작연대를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으로 소급한 것이나, <장풍운전>에 선행하는 한문본 이본 <금선각>이 1722년 혹은 1782년에 창작되었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들을 통해 제시된 것이고, 이는 영웅소설이 <설인귀전>의 영향력이 미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최호석, 『<설저전> 연구』, 『고소설연구』6,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 김준형, 『<金儂覺>의 발굴과 소설사적 의의』, 『고소설연구』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8) 서대석은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이 영웅의 일대기라는 구조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장면의 측면까지 일치하는 측면이 많음을, 여러 영웅소설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영웅소설 분석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석의 연구 이후 한동안 <설인귀전>과의 관련성을 논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설인귀전>과의 친연성을 강조한 서대석의 연구가,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측면에 집중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자생적 형성 경로 모색을 차단했다는 이강엽의 비판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이강엽의 입장은 영웅소설의 형성 경로를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일련의 연구 경향을 대변한다. 그런데 이강엽이 서사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비판한 서대석의 논지는, 실상 작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후에

즉, 본고에서 ‘<설인귀전>이 영웅소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영웅소설의 형성 초기 단계부터 <설인귀전>이 영웅소설의 산모 역할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임의의 시점부터 영웅소설의 전승에 <설인귀전>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영향이 삽화는 물론 서사구조까지 상당 부분에 이른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에 강한 여운을 남긴 <설인귀전>의 영향력은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작업은 단지 둘 사이의 서사적 授受 관계를 해명하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 관계는 영웅소설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인귀전>의 주요 서사와 화소를 다수의 영웅소설이 공통적으로 받아 안을 때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웅소설은 왜 <설인귀전>을 수용한 것일까?

영웅소설이 <설인귀전>을 수용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까지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대신 <설인귀전>이 널리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설인귀전>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현상적인 논리로부터 접근해보자. 다른 이유도 있었겠으나, 일단 <설인귀전>의 수용은 대중적 인기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웅소설에 <설인귀전>과 유사한 서사구조나 삽화가 들어간 것은, 그래야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웅이 되는 주인공이 조력자의 집에서 기식하고 조력자의 딸과 결연을 맺는 것이나,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천자를 구출하는 장면이 유사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예로 들어 둘의 친연성을 언급한 서대석의 근거를, 주제로부터 거리가 먼 단순한 삽화에 기댄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과한 듯하다. 실제로 영웅소설의 자생적 움직임을 논할 때에도 삽화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조력자의 존재와 결연의 양상 혹은 천자 구출의 양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석의 논의를 비판한 것은 설인귀 및 <설인귀전>이 당나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근대적 민족 개념에 의한 가치판단이 연역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셈이다.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그렇다면 당시에 <설인귀전>은 인기의 척도로서 향유층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설인귀전>의 인기는 이 작품의 내적 변모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설인귀전> 이본은, 그 호응을 追隨하는 방향으로 파생되어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본의 변모 양상은 곧 <설인귀전>에 대한 향유층의 관심이 쏠리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인귀전> 이본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했는가?

<설인귀전> 이본 연구는 이윤석에 의해 시작되었다.⁹⁾ 이윤석은 현전하는 이본들을 <설인귀정동>¹⁰⁾의 번역본인 것과 번역본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번역본이 아닌 것이 조선에서 새롭게 창작된 조선의 <설인귀전>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 이본을 읽었으리라 추정했다.¹¹⁾ 이어 이금재는 원전 <설인귀정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인귀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다. 설인귀와 연개소문의 갈등양상을 비교해보면 접전 횟수, 접전 양상이 약화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서술자의 자국 입장에 따른 결과라 하였다. 다시 말해 <설인귀전>의 설인귀는 우리나라와 대립하는 당 장수가 아니라 자국화된 인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¹²⁾ 두 논의는 <설인귀전>의 이본 중 번역본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본에 관심을 갖고, 이 이본들이 소위 말하는 자국화 과정에서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9) 이윤석, 「<설인귀전> 이본고」, 『연구논문집』27, 효성여자대학교, 1983 ; 이윤석, 「<설인귀전>」, 『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이윤석, 「<설인귀전>의 원전에 대하여」, 『연민학지』9, 연민학회, 2001 ; 이윤석, 「경관 <설인귀전> 형성에 대하여」, 『동남어문논집』19, 동남어문학회, 2005.

10) 양승민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흔히 <정동>이라 불리는 <설인귀정동>의 정확한 명칭은 <설당설가부전>이다. 양승민, 앞의 논문, 391면.

11) 이윤석, 앞의 논문, 1983, 7-22면.

12) 이상의 단락은 기존에 진행된 연구사 정리와 큰 틀에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참조하였다. 이유진, 「설인귀전 이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4면 참조.

변모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초기 연구에서 <설인귀전> 이본의 변화는 민족의식 강화의 맥락으로 이해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꼼꼼한 이본 연구를 통해 민족의식 강화의 맥락으로 이본의 변이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유진은 ‘민족의식의 반영’이라는 한정된 시각이 이본들의 계열을 좌우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¹³⁾ 양승민은 당시 ‘설인귀’·‘당태종’·‘곽분양’ 등의 인물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긍정을 민족의식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봤다.¹⁴⁾ 실제로 이들은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은 반면, 연개소문의 경우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잘 알지도 못했으며, 민족 영웅으로 형상화되었던 것도 근대 이후에나 본격화된 일이다.¹⁵⁾ 설인귀를 민족의식 혹은 민족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작품 해석에 상당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에 이유진은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설인귀전> 변모 양상의 순차적 단계를 밝혔다. 이윤석이 <설인귀전>을 번역본인 것과 번역본이 아닌 것으로 구분했지만, <설인귀정동>이 조선에 번역된 양상이나 <설인귀전> 이본이 전승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자에 따르면 <설인귀전>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갈래의 이본으로 나뉜다.

- ① 원전 <설인귀정동>을 세밀히 재현한 이본군
- ② 요동정벌을 배경으로 설인귀 개인의 활약상을 강조하는 이본군
- ③ 요동정벌 이후 남만정벌이라는 또 다른 원정을 통하여 설인귀의 영웅성

13) 이유진, 앞의 논문, 4면.

14) 양승민, 앞의 논문, 402면.

15) 양승민, 앞의 논문, 402면.

이 한층 고양된 이본군¹⁶⁾

그리고 이본의 변이는 ① ▶ ② ▶ ③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①이 원전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요컨대 <설인귀전> 이본을 통해 설인귀라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이 한층 고양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웅적 활약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논의에서는, 한민족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연개소문을 죽인 장본인인 설인귀의 영웅적 활약이 이토록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식했다.¹⁷⁾ 반면 양승민은 설인귀의 영웅적 캐릭터가 조선본에 와서 더 강화되는 사실을 민족의식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¹⁸⁾ 결국 설인귀의 영웅적 면모가 훨씬 더 부각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각기 이견을 보이는 셈이다.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자. 앞서 영웅소설에 깊은 영향을 준 <설인귀전>은 당시 대중적 인기를 보장할 수 있는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설인귀전>의 조선적 변모는 당시 향유층의 설인귀에 대한 인식의 지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라고 전제할 바 있다. 이 전제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단 ‘<설인귀전>의 이본은 후대로 갈수록 설인귀의 영웅적 활약이 보다 강화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답을 얻었다. 설인귀는 조선에 와서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었음이 확실해진 것이다.

16) 이유진, 앞의 논문 참조.

17) 권도경,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고당전쟁 문학의 교섭양상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15, 동북아역사재단, 2007.

18) 양승민, 앞의 논문, 402면.

그렇다면 설인귀의 영웅적 활약 강화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이운석·이금재·권도경 등은 이를 민족의식의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기실 작품의 변모에서 민족의식이 강화되는 징후를 찾기 힘들고, 작품의 맥락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이 유진이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한 연역적 연구를 지양하고, 이본 자체에 집중하여 그 변화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최근에는 민족의식의 문제를 떠나서, 설인귀의 영웅성 강화를 통속성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 유진은 후속 논문에서 설인귀를 완전무결한 영웅으로 만들려는 통속적 욕망이 작품의 이본 변이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¹⁹⁾ 양승민도 당시 설인귀·당태종·곽분양 등의 인물이 소설을 비롯한 서사문학에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민족의식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의식의 지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설인귀전>의 분석이 당대 통속성의 지향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보았다. 요컨대 두 논의가 공히 <설인귀전>의 후대본에서 확인되는 영웅적 활약의 면모를 역사의식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통속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설인귀전> 이본 변모의 추동력은 그것의 통속적·대중적 인기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다는 말은 곧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통속적 인기가 유발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왜 하필 설인귀의 영웅적 활약, 그리고 당태종과 곽분양과 같은 인물의 영웅적 활약’이 소설의 대상으로 유입되어

19) 이유진, 「<설인귀전>의 전승과 통속화 경향」, 『중국학연구』56, 중국학연구회, 2011, 72면.

들어온 것인지, 그 인물들이 선택된 이유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통속적 소설에 대한 흥미라고 하기엔 미진한 감이 있다.

왜 하필 당시 중국에 성행하던 수많은 종류의 소설 중에서 이들 작품을 선택하였을까? 분명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유입되어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이유가, <설인귀전>이 영웅소설에 영향을 끼친 바를 해명해주는 단서가 되리라고 본다. 영웅소설과 인척 관계라 할 수 있는 <설인귀전>이 조선의 독자들에게 고민과 갈등의 여지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수용의 맥락을 살펴해보면, 영웅소설의 특징 또한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확한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당나라 인물이라는 점이다. 당태종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인귀나 곽분양은 모두 당나라 장수이다. 따라서 당시 당나라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설인귀전>이 향유되던 당시 역사서나 문학 텍스트에서 설인귀와 설인귀 주변의 역사적 정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역사서에 등장하는 설인귀에 대한 인식과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인귀에 대한 인식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서 속 설인귀의 형상’과 ‘소설 속 설인귀의 형상’, ‘역사서를 읽었던 계층’과 ‘소설을 읽었던 계층’을 동일한 잣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의문은, 역사서가 상층의 전유물이라는, 반대로 소설이 하층민의 전유물이라는 고정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당연히 하층도 소설 향유층들은 역사서를 꼼꼼히 읽거나 학문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를 전혀 몰라 남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만 귀로 듣는 사람들이 향유층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완판본에는 영웅소설이 역사서·교화서·윤리서 등과 함께 병렬적으

로 놓일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이었다. 이때 역사서·교화서·윤리서 등은 기존에 존재하던 완벽한 형태의 책이라기보다는, 학문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요약본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서·교화서·윤리서라고 해서 계층적·경제적으로 상층부의 사람들만이 읽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이 당시 전라도 태인 지역에서 간행된 역사서 『사요취선』의 경우, 일종의 요약본 역사서 역할을 했으며, 간행된 수량이 엄청났다.²⁰⁾ 사정이 이렇다면, 영웅소설 작품 내용 중에서 소박하게나마 한문 해독 능력을 요하거나 역사적 전고에 대한 스키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이 영웅소설을 향유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거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 역사서 속 설인귀에 대한 인식은 소설 향유층이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고 고구려와 당나라의 관계, 당태종과 연개소문의 형상에 대한 기억의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18세기 이후 조선에서 7세기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기억의 재현 구도를 재구해 보자.

II. 본론

1. 조선후기 역사서 속 설인귀

주지하듯 설인귀는 당 태종 시대의 장수이다. 설인귀가 활약한 시기가 高唐전쟁기, 즉 7세기 중반이므로 <설인귀전>이 유행했던 18~19세기와

20) 기존 역사서들의 요약본이다 보니, 당시 성행하던 역사서들의 역사관과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는 천 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인귀는 소설 속 주인공으로서 시대적 간극을 뛰어넘어 조선후기 당대인들의 정서와 교감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졌고,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에 유입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향유층의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설인귀에 대한 당대의 호의적인 인식을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설인귀가 당나라 장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나라에게 패해 멸망한 고구려를 민족적 정통성의 하나로 보고 있는 우리의 인식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리는 없다. 과연 당시 설인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역사서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인귀전>은 18세기 이후에 조선에서 활발하게 향유되었다.²¹⁾ 따라서 이 시기 역사서 속 설인귀의 형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8세기 이후 대표적 역사서로는 安鼎福(1712-1791)의 『東史綱目』과 韓致瀾(1765-1814)의 『海東繹史』를 들 수 있다. 『동사강목』은 안정복이 1756년에서 1758년 사이에 초고를 완성하고, 22년이 지난 1778년에야 비로소 완성한 방대한 분량의 通史이다. 『해동역사』는 한치윤이 죽기 10여 년 전부터 착수해 본편 70권만 이루고 작고한 후에, 조카 鎭書가 地理考 15권을 속편으로 추가하여 완성한 기전체의 역사서이다. 이로 보자면 『동사강목』은 18세기 중반, 『해동역사』는 19세기 전반의 역사 인식을 담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이는 <설인귀전>이 성행했던 때임은 물론, 영웅소설이 방각본의 형태로 활발하게 유통되던 때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것이다.

21) 조수삼(1762-1849)의 『추재기이』에 <설인귀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 또 <설인귀전>이 경판본으로 간행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작품이 18세기 이후에 활발하게 향유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설인귀전>의 중국 원전으로 예상되는 55회본 <說唐後傳>과 42회본 <說唐薛家府傳>이 각각 1738년과 1838년에 간행되었다는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들 역사서를 통해 ‘설인귀’가 당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1) 『삼국사기』와 『동사강목』·『해동역사』의 인식 주체의 차이

두 역사서 속에 등장하는 설인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증에 앞서, 두 책의 성격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대적 차이가 다소 나지만 역사 인식의 변모 양상을 보다 명징하게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金富軾(1075-1151)의 『三國史記』를 삼고자 한다. 흔히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一然(1206-1289)의 『三國遺事』와 비교되며 공식적 역사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때 김부식의 성리학적 정체성을 거론하며, 『삼국사기』가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조선후기의 『동사강목』·『해동역사』를 근대적 민족의식의 잣대에 비추어 놓고 본다면, 『삼국사기』가 상당히 주체적인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텍스트의 주체’의 문제이다. 모든 언어에는 특정 주체의 시선이 내포되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 주체’와 ‘인식 속의 주체’의 차이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²²⁾

22) 제주도 사람의 입장에서 남해(南海)는 틀린 말이다. 그들에게는 북해(北海)다. 왜 박완서는 ‘제3세계’ 문학이고, 괴테는 ‘세계’문학인가? ‘유색 인종’은, 흰색은 하나의 색이 아니라 색의 기준이 된다는 백인 우월주의의 표현이다. 왜 한국의 프로야구 최종 결선은 ‘코리아 시리즈’인데, 미국은 아메리칸 시리즈가 아니라 ‘월드 시리즈’인가? 정희진,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72-73면.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어 ‘남해’는 진정한 의미의 남해는 아니다. 그들이 몸담고 사유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남해는 ‘북해’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남해를 ‘남해’라고 부른다. 이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 모두가 주체의 시선을 한반도, 좁게는 수도권에 두어야 한다고 교육받았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삼국사기] <645년>

道宗(도종)이 홀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我軍(아군)의 陣(진)이 어지러운 것을 바라보고는 驍騎兵(효기병) 수천 명으로써 이를 치니, 李世勣(이세적)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도와 我軍(아군)이 大敗(대패)하여 죽는 자가 1,000여 명이었다.²³⁾

[동사강목] <645년>

도종이 높은 곳에 올라 고구려 군진(軍陣)이 어지러운 것을 바라보고 날쌔기병 수십 명(《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수천 명)과 함께 돌격하였는데 이 세적이 군사를 이끌고 도우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천여 사람이나 되었다.²⁴⁾

위 인용문은 『삼국사기』와 『동사강목』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뽑은 것이다. ‘고구려’에 대한 표현이 『삼국사기』에서는 ‘아군’으로, 『동사강목』에서는 ‘고구려 군사’로 되어 있다.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발화자와 발화 속 주체의 거리’를 감안하면 이는 결코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 사람의 시선이 서울 사람의 시선에 종속되는 것이 일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언어체계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제주도과 서울 사이에는 엄연한 우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처럼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의문의 부호를 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에 서울 사람을 주체로 상정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발화자라는 주체’와 ‘발화자의 말 속 주체’ 사이의 관계는 발화자의 삶 속에 이미 익숙해진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23) 道宗收散卒，登高而望見，我軍陣亂，與驍騎數千衝之，李世勣引兵助之，我軍大敗，死者千餘人. 번역은 이병도 역 『삼국사기』 전자자료(CD-ROM) 참조.

24) 이하 『동사강목』과 『해동역사』의 기록은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의 번역을 인용한 것이다. 이후 내용에서 이 두 역사서의 기록에는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고 다만 인용문에 해당년도를 기재하도록 하겠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자에서 서술 주체인 김부식과 고구려군의 시선이 일치하고 있다면, 후자에서는 서술 주체인 안정복과 고구려군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동사강목』 서술 주체의 주체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발생한다. 또 다른 부분을 인용해보자.

[삼국사기] <645년>

황제가 안시성(安市城)에 진군하여 치니, 북부누살(北部靺靺) 고연수(高延壽)와 남부누살(南部靺靺) 고혜진(高惠眞)이 아군(我軍)과 말갈병 15만명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하러 하였다.

[동사강목] <645년>

황제가 안시성(安市城)에 이르러 성을 공격하니, 정사일(丁巳日)에 고구려 북부의 누살(靺靺) 고연수와 남부의 누살 고혜진이 고구려와 말갈(靺靺) 군사 15만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하였다.

당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두 기록 모두 ‘황제’가 공격하자 ‘고구려’가 대응하였다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삼국사기』의 경우 ‘황제’와 ‘아군’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동사강목』의 경우 ‘황제’와 ‘고구려군’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이다.²⁵⁾ 둘 다 당나라의 우두머리를 ‘황제[帝]’라는 ‘기표’로 썼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기의’는 다르다. 그것은 고구려군을 지칭하는 표현 때문이다. ‘황제’와 ‘아군’이 쓰였

25) 『해동역사』의 경우 중국과 일본 문헌을 轉載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동역사』가 중국·일본의 문헌을 전제했다는 문제를 떠나서, 한치윤이 갖고 있었던 역사의식 자체가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을 때, ‘我軍’이라는 표현을 쓴 발화자는 적어도 ‘高句麗軍’을 우리 편으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황제’를 대타적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반면 ‘황제’와 ‘고구려군’이 쓰였을 때, ‘高句麗軍’이라는 표현을 쓴 발화자는 ‘高句麗軍’을 말 그대로 ‘高句麗軍’이라는 대타적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고구려군’의 적대자인 ‘황제’는 발화자의 주체와 그 시선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전자는 고구려 중심의 표현이며 후자는 중국 중심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가 비록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기반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동사강목』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가 - 자국의 역사서가 없는 상황에서 - 중국 역사서의 내용을 자국의 관점에서 수용하려고 애썼다고 한다면, 『동사강목』에는 그런 시선조차 찾아보기 힘들며, 마치 서술 주체 스스로 자신이 중원의 주체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중화와 조선 사이에 彼我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해동역사』도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통 『해동역사』는 한치윤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중국 서적 523종, 일본 서적 22종 등 총 545종의 外書 속에서 조선의 역사와 관계된 자료만을 뽑아 집대성한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역사서이며, 외국 서적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서술의 주체가 자연스럽게 중국 혹은 일본 중심으로 수립된, 그래서 조선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해야 하는 역사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는 책의 실상과 다르다. 『해동역사』가 순수한 자료의 나열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특히 고구려의 기원과 관련한 기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역사서에서는 고구려의 기원을 高朱蒙이 세운 고구려 이전에 존재했던 秦·漢 시대의 句麗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중국 역사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한치윤의 아들인 한진서의 직접적인 발언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⁶⁾ 다시 말해서 외국 자료의 집적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동역사』 史家の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이는 고구려라는 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고대사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얼핏 상당히 낯설어 보이는 이러한 의식지향은 기실 19세기 조선의 소중화의식을 지닌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광경이었다. 요컨대 『동사강목』이나 『해동역사』와 같은 역사서를 집필하고 수용했던 18-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중국 고대사는 타자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이다.²⁷⁾

이러한 인식 주체의 차이는 바로 본고가 밝히려고 하는 ‘설인귀에 대한 호의적 인식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설인귀’의 등장을 놓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국적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에게 설인귀에 대한 호의적 인식에 -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적 개념의 - 국적 문제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동사강목』과 『해동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동사강목』·『해동역사』 속 설인귀

두 역사서에서 설인귀에 대한 기록은 645년부터 668년 사이에 보인다.

-
- 26) 鎮書가 삼가 살펴보면, 高句驪는 혹 高驪라고도 되어 있으며, 東史에는 高句麗라고 되어 있다. 대개 句驪라는 칭호는 高朱蒙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秦漢 시대에 이미 그 나라가 있었는데, 漢武帝가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강등시켜 縣으로 만들어서 현도군에 예속시켰다. 元帝 建昭 2년(기원전 37) 갑신에 이르러서 고주몽이 비로소 옛 句驪의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이어 高句麗라고 이름 하였다. 그렇다면 동방에 전후로 두 개의 구려란 나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동역사』 제6권, 세기6, 고구려1.
- 27) 실제로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소중화의식을 강화하려는 입장에 있었던 다수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역사와 조선의 역사를 접맥시키려 했다. 이항로와 같은 위정척사와 인물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동사강목』에는 다섯 차례, 『해동역사』에는 일곱 차례 등장한다.²⁸⁾ 『동사강목』에 등장하는 다섯 차례의 일화가 『해동역사』에 모두 들어가 있다. 기록된 해는 645·658·659(661)²⁹⁾·667·668년이다. 전자가 편년체이고 후자가 기전체이기 때문에 서술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인지 설인귀 관련 사건 서술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후자가 자세한 편이다. 후자가 자세한 이유는 이 역사서가 述而不作的 원칙에 따라 중국·일본의 역사서를 발췌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구려와 같이 중국과 빈번한 교류를 맺고 있었던 나라의 서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는 조선 후기 역사서가 설인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역사서의 차이도 살펴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설인귀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집중하고자 한다. 시간 순서대로 두 역사서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자.

[동사강목] <645년>

○ 황제가 안시성(安市城)을 공격하여 성 밑에서 그 구원병을 대파하니, 고구려 장수 고연수(高延壽)·고혜진(高惠眞)이 항복하였다.

황제가 안시성(安市城)에 이르러 성을 공격하니, 정사일(丁巳日)에 고구려 북부의 누살(耨薩) 고연수와 남부의 누살 고혜진이 고구려와 말갈(靺鞨) 군사 15만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하였다.

… (중략) …

“영공(英公)의 지휘하는 흑기(黑旗)가 포위되었다.”

하니, 황제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마침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더니, 응모되어 군중(軍中)에 있던 용문(龍門)

28) 이 횡수는 『동사강목』의 경우 ‘제3하’~‘제4상’, 『해동역사』의 경우 ‘世紀8’ 내의 내용을 기준으로 도출한 것이다. 『해동역사』에는 이 외에도 ‘地理考’ 등에서 설인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29) 『동사강목』에는 659년으로 기록했고, 『해동역사』에는 이와 같은 당시 통설을 교정하여 661년으로 기록한다고 쓰여 있다.

사람 설인귀(薛人貴)가 기이한 옷을 입고 크게 소리치며 진(陣) 중에 뛰어 들어가니 가는 곳마다 상대가 없어 고구려 군사가 흩어지고 쓰러지매, 대군이 승세를 타 나아가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무너져서 전사한 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다.

[해동역사] <645년>

○ 처음에 용문(龍門) 사람 설인귀(薛仁貴)가 군사의 모집에 응하여 종군하였다. 안시성에 이르렀을 때 마침 낭장(郎將) 유군양(劉君昂)이 고구려 군에 포위되어 매우 위급한 처지였는데, 설인귀가 말을 타고 달려가 구원하면서 앞을 막는 고구려 장수를 참수한 다음, 그 머리를 말안장에 매달고 돌아오니, 고구려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설인귀의 이름을 기억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설인귀가 스스로 날래고 용맹한 것을 믿고는 기공(奇功)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복색(服色)을 특이하게 해 흰옷을 입고 창을 잡고 긴 활을 허리에 찬 다음 크게 소리치며 앞장서서 돌진하니, 가는 곳마다 상대가 없어 고구려 군사가 흩어지고 쓰러졌다. 이에 대군이 승세를 타고 진군하였다. 대총관(大摠管) 유홍기(劉弘基) 역시 힘껏 싸워 고구려 군을 함몰시키고, 양홍례(楊弘禮)가 마병과 보병 24군(軍)을 거느리고 불시에 나아가 치니, 향하는 곳마다 모두 꺾어 참획한 것이 아주 많았다. 고구려 군이 이로 인해 크게 궤멸되어 1만여 급이 참수되었다. 고연수 등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산을 의지해서 지켰다.

위 인용문은 645년에 무명의 설인귀가 당나라 군대를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하는 장면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동역사』의 서술이 비교적 상세하다. 『동사강목』이 편년체답게 당시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었다면, 『해동역사』는 설인귀의 행적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설인귀는 용문 사람으로 군사모집에 응해 전쟁에 나아가게 된,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당 장수 유군양이 포위된 위급한 상태에, 말을 타고 달려가 장수를 구하고, 연이어 고구려 군사들을 쓰러뜨려 결국은 만여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는

다. 남은 고구려 군사와 고연수는 산으로 도망갔으나 포위되고, 결국은 항복하게 된다.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장수인 설인귀가 고구려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서사화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보다 설인귀의 행적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서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면 이러한 구도가 더 명확해진다.

[동사강목] <658년>

하6월 당의 정명진(程名振)·설인귀(薛仁貴)가 고구려를 쳐서 깨뜨렸다. 영주도독 겸 동이도호(營州都督兼東夷都護) 정명진과 중랑장(中郎將) 설인귀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적봉진(赤烽鎭)을 쳐서 함락시키고 4백여 급(級)을 참수(斬首)하니, 고구려의 대장 두방루(豆方婁)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막으므로, 명진이 거란(契丹)의 군사로써 역습하여 크게 깨뜨리고 2천 5백 급을 참수하였다.

[해동역사] <658년>

○ 현경(顯慶) 3년 보장왕 17년 6월 임자에 영주도독 겸 동이도호(營州都督兼東夷都護) 정명진과 우령군중랑장(右領軍中郎將) 설인귀(薛仁貴)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 고구려의 적봉진(赤烽鎭)을 쳐서 함락시키고, 4백여 급(級)을 참수(斬首)하였으며, 수백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고구려가 대장 두방루(豆方婁)를 파견하여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 정명진이 거란의 군사로써 역습하여 크게 깨뜨리고, 2천 5백 급을 참수하였다.

658년 6월에는 설인귀가 정명진과 함께 고구려의 적봉진을 쳐서 함락시키고 400여 급을 참수하였으며, 이에 고구려 대장 두방루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막았으나, 다시금 정명진이 역습하여 2,500여 급을 참수하였다.

눈여겨 볼 것은, 정명진과 설인귀의 관직 앞에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고구려 진영이나 장수 앞에는 꼭 ‘고구려’라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다

는 점이다. 앞서 ‘아군’과 ‘고구려군’의 차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저자가 당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고구려를 타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설혹 중국 기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나라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앞서 『삼국사기』의 서술 주체가 고구려 중심으로 변경된 사례를 감안하면, 『동사강목』·『해동역사』에서 서술 주체가 변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두 역사서의 서술자들에게는 중국을 주체로 놓고 고구려를 타자의 위치에 놓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동사강목] <659년>

동11월 고구려 장수 온사문(溫沙門)이 설인귀(薛仁貴)와 횡산(橫山)에서 싸우다가 패배하였다.

【안】 《성경지(盛京志)》에 이르기를,

“설인귀가 횡산에서 온사문을 깨뜨리고 석성(石城)에서 싸울 때, 활 잘 쏘는 사람이 있어 당군(唐軍)을 많이 죽이므로, 인귀가 단기(單騎)로 돌격하니 적(賊)은 궁시(弓矢)가 모두 부러져 마침내 사로잡았다.”고 하였다.

[해동역사] <661년>

○ 소정방이 양건방(梁建方)·계필하력(契苾何力)과 함께 요동으로 갔는데, 고구려의 대장 온사문(溫沙門)을 만나 횡산(橫山)에서 싸웠다. 설인귀(薛仁貴)가 필마로 돌진하면서 고구려의 군사들을 쏘아대자, 쏘는 곳마다 모두 쓰러졌다. 고구려 군사 가운데 활을 잘 쏘는 자가 있어 성 아래에서 수십 명을 쏘아 죽였는데, 설인귀가 단기로 달려가 곧장 돌진하자, 활과 화살을 모두 잃어버린 채 손을 들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생포하였다. …(중략)… 《구당서》

659년 혹은 661년의 기록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설인귀의 활약상이 미화되고 있다. 설인귀가 匹馬單騎로 돌진하자 고구려의 군사들은 모두 쓰러지고, 활을 잘 쏘서 당나라 군사들을 수십 명 죽인 군사 또한 활과 화

살을 모두 잃어버린 채 움썅달썅 못하는 신세로 생포된다. 마치 영웅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설인귀의 능력이 출중함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곧 역사서이고, 중세 동아시아에서 역사서는 조금의 허구도 가미되지 않아야 한다고 여겼기에,³⁰⁾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 이것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설인귀의 활약이 비교적 강조되어 있는 모습은 의미가 남다르다.

667년과 668년의 기록 또한 설인귀의 활약이 돋보인다. 내용인 즉, 설인귀가 667년 연개소문의 아들 중 하나인 淵男建(혹은 泉男建)이 엄습하자 이를 격퇴하고, 당 장수인 고간에 의해 패퇴하던 고구려 군대를 횡으로 공격하여 5만여 명을 죽인 뒤, 南蘇·木底·蒼巖 등의 3성을 함락시키고 연개소문의 다른 아들인 淵男生(혹은 泉男生)의 군사와 연합한다는 것이다.³¹⁾

30) 루샤오펑 저,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역사에서 허구로 - 중국의 서사학』, 길, 2001 참조.

31) <667년> [동사강목]

- 이적(李勣)이 고구려의 신성(新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16성(城)을 항복받았다. 겨울 10월에 적(勣)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상략)… 방동선(龐同善)·고간(高侃)은 아직도 신성에 있었는데, 천남건(泉男建)이 군사를 보내 그 진영을 엄습하니,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설인귀(薛仁貴)가 이를 격파하였다. 간(侃)이 진군하여 금산(金山)에 이르러 고구려의 군사와 싸워 패배시키고 승세를 타서 추격하였는데, 설인귀가 군사를 이끌고 횡(橫)으로 공격하여 고구려의 군사 5만여 인을 죽이고 남소(南蘇)·목저(木底)·창암(蒼巖) 등의 3성을 함락시키고 천남생의 군사와 합하였다.

<667년> [해동역사]

- 9월 신미에 이세적이 고구려의 신성(新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다음 계필하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세적이 처음에 요수를 건너고서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상략)… 이때 방동선(龐同善)과 고간(高侃)이 아직 신성에 있었는데, 연남건(淵男建)이 밤중에 군사를 보내 이들 진영을 엄습하였다. 그러자 설인귀(薛仁貴)가 이들을 격파하였다. 고간이 진군하여 금산(金山)에 이르러 고구려의 군사와 싸웠는데, 전세가 불리하였다. 고구려가 승세를 타서 고간을 추격하였는데, 설인귀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여 고구려의 군사를 대파하고 5만여 급을 참수하였으며, 남소(南蘇)·목저(木底)

주지하듯 연남생은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연남생은 동생인 연남건에 의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자 당나라와 결탁하였고,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된다. 이러한 사건의 발단이 된 667년의 이 사건은 결국 고구려 멸망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때도 설인귀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668년도 마찬가지이다. 부여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때도 설인귀의 영웅적 행적만이 부각되고 있다. 3000명(『해동역사』 2000명)의 군사를 갖고 공격을 하는 것에 당나라 장수들이 부담을 느끼고 염려를 하자, 설인귀는 군사는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장수들을 독려하고, 결국 부여성과 그 일대를 함락시켰다는 내용이다.³²⁾

이로써 『동사강목』과 『해동역사』 속에 등장하는 설인귀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설인귀는 당나라 장수이지만 조선후기 역사서에서 영웅으로 등장

· 창암(蒼巖) 등 세 성을 함락시키고 연남생의 군사와 합하였다. 《자치통감》

32) 〈668년〉 [동사강목]

설인귀는 고구려의 군사를 금산(金山)에서 격파하고, 승세(勝勢)를 이용하여 3천 인을 거느리고 부여성을 격파하려 하자 여러 장수들이 군사 적은 것을 가지고 말리니 인귀가,

“군사는 많다고 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하고, 드디어 전봉(前鋒)이 되어 나아가서 고구려와 싸워 크게 격파하여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1만여 인이었다. 마침내 부여성이 함락되니 부여천(扶餘川) 주변의 40여 성이 모두 풍문만 듣고 바람에 쓸리듯 항복을 청하였다.

〈668년〉 [해동역사]

○ 2월 임오에 설인귀가 고구려 군사를 금산(金山)에서 격파하고 나서 승세(勝勢)를 이용하여 2천 명을 거느리고 부여성(扶餘城)을 공격하려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군사가 적다는 이유로 말리니, 설인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선봉이 되어 달려 나갔다. 고구려 군사들이 와서 막았으나 이를 맞받아 쳐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1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이에 마침내 부여성을 함락시키니, 부여천(扶餘川) 주변의 40여 성이 모두 풍문만 듣고도 두려워하여 한꺼번에 항복을 청하였다. 설인귀가 곧바로 바다를 아우르고 땅을 경략하여 이세적의 군대와 평양에서 만났다. 《구당서》

한다. 결정적인 위기로부터 당나라를 구출하고, 결국은 고구려 멸망에 일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역사서는 설인귀에게 그 어떠한 부정적 언사도 남기지 않는다.

이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설인귀의 모습이 역사서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조선 사람들이 설인귀를 영웅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들 역사서가 당나라의 기록을 가져온 것은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의 기록을 취하기 위한 이유였지만, 굳이 고구려의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은 역사적 기록이라 하더라도, 설인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인용하는 모습이, 역사서 속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그 이상의 복잡한 논리가 존재할 수 없다. 조선에서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실 정도로 그 선호도가 높았던 것 또한 이를 증명한다.³³⁾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설인귀에 대한 조선의 호응이 비단 설인귀 한 개인에 대한 호응의 문제였느냐 하는 것이다. 장수만 좋아하고, 그 장수가 속한 나라는 좋아하지 않기로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설인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곧 당나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당나라를 중심에 놓고 고구려를 타자에 놓은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럼 설인귀를 둘러싼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봄으로써, 설인귀에 대한 호의를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2. 당태종과 연개소문에 대한 상반된 인식

설인귀를 둘러싼 중요한 인물은 당태종과 연개소문일 것이다. 당태종은

33) 권도경,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전승의 역사적 변동 국면』, 『정신문화연구』 제30권2호(통권10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청계사학회, 2007 참조.

당나라의 입장에서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두 인물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의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해동역사] <642년>

○ 16년에 영류왕 25년 서부대인(西部大人)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섭직(攝職)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니, 여러 대신들이 고건무와 비밀히 의논하여 죽이려 하였는데, 그 일이 누설되었다. 이에 연개소문은 부병(部兵)을 다 불러 모으고는 열병한다고 하면서 성 남쪽에 술과 음식을 성대히 차려 놓고 대신들을 불러 참관하게 하니, 대신들이 모두 와서 보았다. 그러자 연개소문은 군사들을 시켜 그들을 모두 죽였는데, 죽은 자가 1백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는 창고를 불태우고 궁궐로 쳐들어가 고건무를 죽이고 고건무의 동생인 고대양(高大陽)의 아들 고장(高臧)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 자신은 막리지(莫離支)가 되었는데, 막리지는 중국의 병부 상서(兵部尙書)에 중서령(中書令)을 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로부터 연개소문은 국정을 전횡하였다. 태종이 고건무가 죽었다고 듣고는 거애(擧哀)하였으며, 사신을 파견해 조제(弔祭)를 지냈다. 《구당서》

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연개소문은 대신들 100여 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추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당태종은 고건무가 죽었다는 소식에 애도를 표하고 사신을 파견해 弔祭를 지내주는 덕을 베푼다. 이 기록이 인상적으로 증명하듯, 연개소문은 역사서에서 결코 善人(善人)으로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당태종은 聖君(聖君)의 인상을 풍기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당태종

당태종의 聖君다운 행적들은 역사서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 중 몇몇 인

상적인 장면들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해동역사] <644년 11월>

○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지나가는 곳에는 진영(陣營)을 꾸미지 말고 음식도 사치스럽고 풍성하게 하지 말라. 쉽게 건널 수 있는 물에는 다리를 놓지 말고, 행재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현에서는 학생과 노인들을 보내 영알(迎謁)하는 것을 하지 말라. 짐이 지난날 직접 창을 잡고 난을 평정할 적에는 한 달 먹을 양식조차 없었지만 가는 곳마다 모두 승리하였다. 지금은 다행히도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다. 이에 단지 군량을 운반하는 수고로움이 있을까 하는 것만 이 염려되므로, 소와 양을 몰고 가서 군사들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출정에서 짐이 반드시 승리할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치는 것이고, 둘째는 순리로써 역리를 치는 것이고, 셋째는 다스려진 나라로써 어지러운 나라를 치는 것이고, 넷째는 편안한 군사로 피로한 적을 치는 것이고, 다섯째는 백성들이 반기는 군사로 원망하는 군사를 치는 것이 그것이니, 어찌 이기지 못할까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당태종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면서 작성한 조서이다. 황제는 본인이 지나가는 곳에 진영을 꾸미지도 말고, 음식도, 다리도, 학생과 노인의 迎謁도 준비하지 말라고 한다. 황제의 출정을 맞이하여 형식적인 행사나 겉치레로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황제이지만 검소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이후 당태종의 소박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당태종은 참호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고,³⁴⁾ 아군 장군의 화살 맞은 부위의

34) [해동역사] <645년 4월>

○ 장군예를 참수하여 조리돌렸다. 정축에 거가가 요수(遼水)를 건너와서 다리를 철거하여 사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마수산(馬首山)에 주둔하였다. 황제가 몸소 요동성 아래에 내려가 사졸들이 흠을 저다가 참호를 메우는 것을 보고, 무거운 것을 진

피를 직접 빨아주기도 하며,³⁵⁾ 사졸들이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자신만이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새 옷을 거절하기도 했다.³⁶⁾ 이 기록을 보면 당태종은 일반 백성과 군사들이 존경하고 따를만한 어진 정치인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뿐이 아니다. 잡혀온 고구려 첩자가 무척 수척해보여서 물어보니 며칠을 굶었다고 하자 먹을 것을 내어주고, 첩자를 통해 막리지에게 우회적으로 경고의 문구를 보내는 대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돌아가는 첩자에게는 신발도 건넨다.³⁷⁾ 적장인 안시성의 성주에게는 성을 굳게 지킨 것을 가상

자의 집을 친히 나누어 말 위에 실어 옮기니, 못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앞 다투어 흠덩이를 날랐다.

35) [해동역사] <645년 4월>

○ 을미에 군사를 백애성(白崖城)에 주둔시키고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 이사마(李思摩)가 화살에 맞았는데, 황제가 친히 피를 빨아주었다. 장사들이 그 사실을 듣고는 모두들 감격해 하며 흥기하였다.

36) [해동역사] <645년 9월>

○ 병오에 영주(營州)에 도착하였다. 조서를 내려 싸움에서 죽은 군사의 시신을 모아 유성(柳城)에서 장사 지내고, 태뢰(太牢)로 제사 지내게 하였다. 황제가 임하여 곡을 하니, 시종하는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병진에 황제가 말을 타고 임유관(臨渝關)으로 들어갔다. 황태자가 길옆에서 맞이하였다. 처음에 황제가 태자와 이별할 적에 갈포(褐袍)를 입고 입어하여 이르기를, “너를 다시 보게 되는 날 바꾸어 입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두 철이 지나도록 바꾸어 입지 않아 옷에 구멍이 났는데, 여러 신하들이 바꾸어 입기를 청하자, 황제가 이르기를, “사졸들이 모두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새옷을 입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태자가 깨끗한 옷을 올리자, 바꾸어 입었다. 요동에서 사로잡은 고구려 백성 1만 4천 구(口)를 적몰하여 노비로 삼았는데, 먼저 이들을 유주(幽州)에 모아 놓고 장차 장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려 하였다. 황제가 그들 부자와 부부가 떨어져 헤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유사(有司)에 명하여 포백(布帛)으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어 주고 용서하여 백성이 되게 하니, 늘어서서 절하면서 즐거워 외치는 소리가 3일 동안 그치지 않았다. 고연수는 항복한 뒤에 근심하다 죽었고 고해진만 장안(長安)으로 왔다.

37) [해동역사] <645년 8월>

8월 갑진에 후기(候騎)가 막리지의 첩자(諜者) 고죽리(高竹離)를 잡았는데, 손을 뒤로 묶은 채 군문(軍門)으로 데려 갔다. 그러자 황제가 불러 보고는 결박을 풀어 주면서

히 여기며 비단을 하사하기도 한다.³⁸⁾ 황제가 경전의 말처럼 중원과 변방의 경계를 초월하여 어진 정치로 세계를 장악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자국의 백성과 군인들뿐만 아니라 변방의 성주와 군인 및 백성들에게까지도 善政을 잃지 않는 당태종의 모습이야말로 황제의 교본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후기 역사서에서 당태종은 가장 전형적인 황제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당태종은 설인귀라는 인물만큼이나 훌륭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2) 연개소문

반면,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당히 부정적이다.

[동사강목] <642년>

춘정월 고구려가 동부 대인(東部大人) 천개소문(泉蓋蘇文)에 명하여 장성(長城)을 감독하여 쌓게 하였다.

묻기를,

“어째서 그렇게 수척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몰래 셋길을 택하여 오느라 며칠 동안 먹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먹을 것을 주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그대가 첩자가 되었으니 속히 복명(復命)해야 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막리지에게 ‘군중의 소식을 알고 싶으면 사람을 곧바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지, 어찌하여 셋길로 보내어 고생시키느냐.’고 말하라.” 하였다. 고죽리가 맨발이었는데, 황제가 신을 주어 보냈다.

38) [해동역사] <645년 9월>

○ 황제가, 요동은 일찍 추워져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병사와 군마가 오래 머무르기가 어렵고 또 양식이 장차 떨어지려 하므로, 계미에 군사를 돌리라고 칙명을 내렸다. 먼저 요주(遼州)와 개주(蓋州) 두 주의 호구(戶口)를 뽑아서 요수(遼水)를 건너게 하고, 이어 안시성 아래에서 군사를 시위하고 돌아가니, 성중에서는 모두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았다. 안시성의 성주(城主)가 성 위에 올라가 배사(拜辭)하니, 황제가 굳게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겨 비단 1백 필을 주면서 임금을 잘 섬기라고 격려하였다. 이세적과 강하왕 도종에게 명하여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후군이 되게 하였다.

개소문(蓋蘇文)은 일명 개금(蓋金)이라 하는데 성은 천(泉)씨이니, 자신이 물속에서 낳았다 하여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다. 형체(形體)가 괴걸(魁傑)하고 의기(意氣)가 호일(豪逸)하였다. 그 아버지 동부대인 대대로(東部大人 大對盧)가 죽으매 소문(蘇文)이 마땅히 뒤를 이을 것이나 나라 사람들이 그 잔인하고 포악한 것을 미워하여 그를 세우지 아니하였다. 소문은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고 섭직(攝職)할 것을 청하면서 ‘후일에 만일 옳지 않음이 있으면 비록 폐함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하니, 사람들이 측은히 여겨 허락하여 드디어 위(位)를 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장성의 수축을 감독하라는 명을 받아 남자들은 부역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농사를 짓게 하여 백성이 조금도 쉬지 못하였다.

인용문을 통해 보듯, 역사서에서 연개소문은 자신을 신이한 과정을 통해 출생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장성의 수축을 감독하는 자리에서 부역하는 이들을 혹독하게 부려 백성들이 조금도 쉬지 못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연개소문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개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술은 내내 이어진다.

[동사강목] <642년>

동10월 고구려에서는 천개소문(泉蓋蘇文)이 그 임금 건무(建武)를 시해(弑害)하고서 왕의 조카 장(藏)을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莫離支)가 되었다.

개소문이 아버지를 이은 이후 흉포하여 많은 불법을 저지르니, 모든 대인(大人)과 왕이 비밀히 의논하여 죽이려 하다가 일이 누설되자 소문이 ‘부병(部兵)을 다 모아 열병한다.’ 하고 성 남쪽에서 술과 음식을 성대히 차려놓고 모든 대인을 불러 참관하게 하고는 그들이 이르매 다 죽이니 모두 백여 인이나 되었고 드디어 궁궐에 들어가 왕을 시해하여 두어 동강으로 잘라 개천 가운뎃에 버리고 영류왕(榮留王)이라고 하였다. 왕의 아우 대양(大陽)의 아들인 장(藏)을 세워 왕으로 삼으니, 이가 보장왕(寶藏王)이다. 소문이 스스로 막리지(莫離支)가 되니 막리지는 관명(官名)으로, 당(唐)의 병부 상서(兵部

尙書)에 중서령(中書令)을 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원근을 호령하고 국사(國事)를 마음대로 처리하니 아무도 감히 무어라 하지 못하였다. 몸에는 다섯 개의 칼을 찻으며 의복과 관(冠)과 신[履]은 다 금채(金綵)로 장식하였고 팔을 휘저으며 걸음을 높이 걸어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듯이 하니 좌우에서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매양 말을 타고 내릴 때면 반드시 귀인과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밟고 오르내렸고, 나오고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대오(隊伍)를 펴서 앞에서 인도하며 길게 외치니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서 갱곡(坑谷)에 피하여 길에 보행자가 끊어지니 나라 사람들이 괴롭게 여겼다.

앞서 당태종과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해동역사』의 기록처럼 연개소문이 섭정을 거듭하다가 대신들을 죽이고 실력자에 오르는 과정을 서술한 『동사강목』의 대목이다. ‘왕을 두 동강을 내 개천 가운데 버렸다’는 상세한 서술을 들어 그 잔인함을 더했고, ‘몸에는 다섯 개의 칼을 찻으며 의복과 冠과 신[履]은 다 金綵로 장식하였고 팔을 휘저으며 걸음을 높이 걸었다’는 내용이나 ‘매양 말을 타고 내릴 때면 반드시 귀인과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밟고 오르내렸고, 나오고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隊伍를 펴서 앞에서 인도하며 길게 외쳤다’는 내용을 통해, 그가 포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신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태종이 자신의 출정 때 일체의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연개소문의 惡政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비적 서술은 당태종과 설인귀의 고구려 침략이 곤경에 처한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밖에도 연개소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두 역사서에 공히, 그리고 빈번히 등장한다. 연개소문을 민족사의 훌륭한 장수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는 자못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또한 중국 문헌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나라에 호의적이라는 논리로 이해하기에는, 당

나라와 당태종에 대한 우호적 시선이 상당히 노골적인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사회에 이러한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밝혀가며 영웅소설에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이유를 함께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3. 조선후기 ‘설인귀’ 인식과 문학적 반영의 의미

1) 소중화의식의 자족적 발현

살펴본 바와 같이 설인귀에 대한 호의적 시선은 단순히 설인귀라는 한 장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당태종에 대한 호의적 시선, 연개소문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족적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당나라를 좋아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를 통시적으로 관통하는 역사관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당시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관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당나라에 대한 우호적 시선이 표출된 것이라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은 특정 역사관에 비추어, 각 시기마다 인정하고 납득할만한 정체성을 지닌 역사적 집단들을 설정하고, 이를 계보학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이른바 정통론에 입각한 역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축한정통론이 우세했고, 『동사강목』과 『해동역사』는 이 정통론을 근거로 저술된 역사서이다. 『동사강목』이 산출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다음의 서술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지배층 인물들에게 있어서 남송의 말제에게 정통을 부여하는 것은 남명에게 정통을 부여하는 현실 인식의 역사적 투사였던 것이다. 이는 동시에 청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또 다른 표현이자 중화계승의

식에서 기인한 자존감의 발현이기도 했다. 축한정통의 입장을 견지했던 안정복이 중국사에서 원나라와 청나라를 도적으로 보면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정통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드러낸 것은, 비록 정조 앞에서 한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결국 삼국시대의 축한, 남송의 단종·말제, 그리고 남명을 정통으로 해석하는 역사인식은 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견지되던 중화계승의식의 학문적 표현이었던 셈이다. 17세기 후반 이후 중화계승의식의 전개와 강화 속에서 1세기 이상 정통론이 조선후기 역사인식을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통론을 대표하는 서적인 ‘강목’은 18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전범적인 역사서의 위상을 잃지 않고 있었고, ‘紫陽袞鉞’과 같이 ‘강목’을 이용한 역사서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안정복은 ‘역사제강’, ‘동국통감제강’, ‘동사회강’ 등 기존의 강목체 역사서를 비판, 종합한 위에서 자국사 전체를 정통론에 입각하여 가장 완성된 형태로 재구성한 ‘동사강목’을 편찬하였다.³⁹⁾

따라서 이러한 정통론에 입각한 역사 속에서 고대사를 바라보게 되면, 북방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경우에는 명나라를 침범한 청나라나, 송나라를 침범한 원나라를 연상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역사에서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나라를 중심에 놓고 고구려를 주변부에 배치하는 구도가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연개소문이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반역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으며, 그런 인물이 당 태종의 군대에 저항하고 중원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다. 어찌 보면 축한정통론의 입장에서는 북방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중에 국가적 倫紀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중화 중심의 역사가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립하는惡의 존재를 배치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

39)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207-208면.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개소문이 선택되었을 수도 있다.

여하간 연개소문과 고구려는 당나라 중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악한 존재가 되었고, 설인귀와 당나라는 이를 잘 수호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선악의 구도를 조선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스스로를 중화의 대체자이자 계승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 인식은 곧 소중화의식, 더 구체적으로는 중화계승의식의 자족적 표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화와 동일한 역사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통 역사의 중심에 놓여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이는 조선중화주의이거나 혹은 그것으로 나아가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문화적 자존감의 상상적 실현

그렇다면 자부심의 구체적 대상이 왜 하필 설인귀인가? 조선의 중화의식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그 많은 중국의 영웅과 장수 중에 하필이면 설인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까?

본 논문은 그 이유가 당시 조선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화이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⁴⁰⁾ 혈통과 영토를 통해 정통성을 계승할 수 없었던 물리적 한계를 인식한 조선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중화의식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 차원의 화이관을 강조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문화적 성숙의 정도를 갖고 중원과 오랑캐를 구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어찌 보면 화이관을 보다 강화하려는 논리로 비칠 수 있지

40) ‘문화적 화이관’을 비롯한 이 시기 역사 인식에 대한 논지는 허태용, 앞의 책, 171-214면을 참고하였음.

만, 역으로 생각하면 華夷의 경계라는 것이 선천적이고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며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도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방의 위치에 있는 조선에게도 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제 혈통이나 지역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문화적 측면만으로도 중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집권이 현실로 인식되고 명나라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중화가 재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좌절했던 사람들에게 문화적 화이관이 이념적 동력을 불어넣어 준 셈이다.

문화적 화이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사례 혹은 역사적 기억이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설인귀는 조선의 문화적 화이관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역사 속 가장 확실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인귀는 絳州 龍門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엄밀히 말해 중원이 아니다. 중원의 경계를 살짝 넘어선 북쪽 변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한정통론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용문은 지금의 山西省 지역에 해당하는데, 원말명초에 『삼국지연의』를 지은 나관중, 그 『삼국지연의』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 중 하나인 관우, 『자치통감』을 지은 사마광 등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이다. 축한정통론 자체가 『자치통감』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나관중의 소설 또한 『자치통감』과 축한정통론의 관점으로 서술되어 유비와 관우, 제갈량 등이 부각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조선의 문화적 화이관과 묘하게 겹친다. 설인귀가 태어난 지역은 비록 지리적으로 명백히 중원에 포함되는 곳은 아니면서도, 문화적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만한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 당시의 역사적 관점인 축한정통론의 시각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

이 많이 배출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사람들은 용문 출신의 설인귀가 뛰어난 지략과 재능으로 전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 또한 중원에 버금가는 변방으로서, 문화적 화이관을 통해 중원을 대체할만한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설인귀와의 동질감에는 이러한 논리적인 면도뿐만 아니라, 설인귀가 白袍를 입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조선 사람들은 설인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변방의 소중화로서 문화적 자존감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던 셈이다.

요컨대 18세기 후반 이후 조선에서는 문화적 화이관을 기반으로 조선이 중화의 중심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축한정통론에 입각하여 남방 지역의 역사를 인정하고 북방의 역사를 부정하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동사강목』이나 『해동역사』에서 당나라를 긍정하고 고구려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설인귀인가? 본 논문은 그 이유를 설인귀가 북쪽 변경이 시작하는 지역인 용문 출신이라는 점에서부터 찾았다. 용문 지역은 변방이면서도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용문 출신의 설인귀를 보면서, 바로 조선이 설인귀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3) 영웅소설의 〈설인귀전〉 수용의 의미

여기서 답은 끝나지 않는다. 결국 본고는 설인귀라는 인물이 왜 문학작품 특히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이 고민을 시작했다. 따라서 결론은 <설인귀전> 수용이 영웅소설 정체성 형

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흔히 영웅소설에 ‘민족적’ 혹은 ‘민중적’·‘귀족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한다. 전자가 국난을 해결하는 국가적 차원의 영웅적 형상을 전제한다면, 후자의 두 개념은 특정 계층의 민의를 대변하는 계급적 영웅의 형상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는 영웅소설에 대해서 ‘대중적’·‘통속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 상으로는, 전자가 향유층의 넓은 범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가 작품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기실 두 단어는 ‘다수의 중하층 사람들이 누구나 읽고 공감하는 흥미 위주의 독서물 혹은 그 경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함께 사용된다.

그런데 과연 이 중에 영웅소설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수식어가 있을까. 본고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영웅소설이 <설인귀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를 감안하여 이를 검증해보자. 일단 영웅소설이 중화 중심의 역사와 그것의 재현을 꿈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로 거론된 근대적 의미의 ‘민족적’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을 듯하다. 굳이附言하지 않아도, 조선후기 역사서 및 <설인귀전>으로부터 도출된 당나라에 대한 호의적 인식과 고구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민중적’·‘귀족적’이라는 말도 영웅소설 작품을 포괄할 수 있는 수식어가 되기는 어렵다. 설인귀를 포함하여 대개의 영웅소설 주인공들은 한미하거나 퇴락한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서 다양한 고난을 극복하고 높은 벼슬에 오른다. 그들은 항상 제도권 내의 성공을 갈망하기 때문에 ‘민중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애초부터 귀족이거나 혹은 무조건 귀족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족적’이라는 말로 정의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중적’·‘통속적’이라는 표현도 영웅소설 작품들이 단순히 흥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역사 인식과 윤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각각의 성격을 모두 조

금씩 갖고는 있지만, 어떠한 수식어도 영웅소설의 성격을 완벽하게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웅소설이 <설인귀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영웅소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설인귀전>은 작품의 서사구조를 포함한 주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인귀전>에 열광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서 고구려 장수를 무찌르는 장면들이 자랑스러운 戰功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현재 우리와는 다른 인식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설인귀와 <설인귀전>에 대한 호감은 곧 중화주의에 대한 동의와 긍정인 셈이다. 이 논리에 따라 영웅소설은 동아시아 중세의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보수적 성향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보수적 성향의 영웅소설을 중하층 신분의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민중적’·‘개혁적’이라는 표현이나, 반대로 ‘귀족적’·‘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자체에 이미 특정 계급을 상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표현들이 문학에 적용될 경우 자연스럽게, 그 문학은 특정 계급의 문학이 된다. 그런데 영웅소설의 경우 중세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보수적 성향의 장르이면서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장르였다는 점에서,⁴¹⁾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품 성격 규정의 어떠한 틀과도 쉽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영웅소설을 설명할 때에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41) 계급들은 역사과정의 대리인/수행자들이지만, 무의식적인 수행자들인데(이런 표현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에서 거듭 나타난다). 루카치는 그들이 수행한다(agissent)기보다는 그저 행해질 뿐(agies)이라고 지적한다. 아니면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계급의식에 따라서 행위하는데, 우리는 ‘인간들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단순히 권력을 장악한 계급은 보수적이고 상승하는 계급은 혁명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양운덕 옮김, 사회의 상상적 제도1, 문예출판사, 1994, 51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영웅소설은 ‘중하층 신분의 사람들이 향유했던 장르’이면서 동시에, 중화 중심의 질서를 회고하고 갈망하던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장르’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가 결론 내린 영웅소설의 정체성과 향유층의 이러한 구도는 얼핏 낯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을 규정할 때 상정하는 향유층의 의식이나 작품의 지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하층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영웅소설을 향유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다수의 사람들 내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주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작품이나 독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계급’에 대한 견고한 인식들을 걷어낸다면 더욱 실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중하층 신분의 사람들은 통속적인 작품과 통속적인 인식만 선호하는가? 오히려 중하층 신분의 사람들이야말로 구한말 외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세력의 중심에 있었다. 또 과연 통속적인 작품은 그냥 그 자체로 흥미를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가? 오히려 통속성은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경우가 더욱 많고, 그러한 통속성이 은연중에 통치의 도구로 사용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속적’이라는 성격 규정 너머에서 그들이 통속성을 인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가 있다면 왜 재미가 있는지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중화주의라고 하면 보통 거대한 이데올로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이데올로기의 파급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계층에까지 단순한 코드를 타고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평이한 수준의 이해를 동반한 역사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현 대사회를 보면 사람들 개개인에게는 특정 국가를 신뢰하거나 혹은 과거의

특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들이 있지만, 이러한 성향이 모두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역사인식 혹은 정치의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완판본 영웅소설을 보면 대부분의 작품에서 공히 역사적 典故가 다수 삽입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고들은 기계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작품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작품의 서사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전고라고 하면 고전소설 전반에서 두루 쓰이는 상투적 표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그 전고들의 통계를 내보면 특이한 동향을 발견할 수 있다.

<소대성전>·<용문전>의 경우 완판본에서 전고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확인되는데, 이때 사용한 전고들의 시대적 출처가 秦漢時代に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진한시대는 秦과 前漢·新·後漢 그리고 魏·蜀·吳 삼국의 역사를 지칭하는데, 작품 속 전고는 이 중에서도 특히 楚漢戰爭期 漢과 魏·蜀·吳 삼국시대 속 蜀漢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⁴²⁾

조선후기에는 ‘축한정통론’의 역사인식이 강했다. 이는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고, 명나라가 망해 한족 중심의 질서가 붕괴된 당시의 시대적 정황과 맞물려 있다. 실질적인 명의 복원이 불가능함을 실감한 17세기 말 이후 조선에서는 대명의리를 상징하는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자학을 절대화하고 정통론을 강조하는 존주론이 보다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⁴³⁾ 특별히 다른 매체가 없었던 조선후기의 정황에서 소설이 이러한

42) 엄태웅, 「<소대성전>·<용문전>의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의 변모 양상 - 축한정통론과 대명의리론의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1, 우리어문학회, 2011 참조.

43) 이 단락은 허태웅의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허태웅, 「17세기말~18세기초 존주론의 강화와 삼국지연의의 유행」, 『한국사학보』15, 고려사학회, 2003 ; 허태웅,

역사인식에 기반한 전고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소대성전>과 <용문전>에서 한고조, 제갈량, 촉한의 인물인 유비·관우·장비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의 영향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삼국지연의』를 수용하게 한 근본적인 역사인식 및 정치의식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영웅소설은 한편으로는 재미를 추구하는 독서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자들을 이념적으로 교화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했던 장르였기 때문이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소설을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안을 이념이나 사상의 기준으로 보는 권력층에게 촉한정통론을 기반으로 한 소설은 굳이 강하게 막아서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흥미를 중심으로 소설을 읽으면서도, 소설 속 선악의 구도나 역사인식이 자신의 가치판단에 개입되어, 낮은 수준의 이해이지만 일정한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꼭 상층의 사람들만 역사나 교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 이외의 계층들도 당대의 역사인식을 학습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모두에 언급한대로 영웅소설의 향유층과 향유 문화를 살펴보면, 영웅소설을 향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 가령 중인층의 독서 문화에 역사서나 교화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생산지로도 유명한 태인은 일찍부터 방각본이 간행되어서, ‘방각본의 원류’ 혹은 ‘완판본 형성의 前兆’로 이해되는 지역이다.⁴⁴⁾ 이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초판이 대개 179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전반에 걸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敎化書類이다.⁴⁵⁾ 더욱이 이 지역 방각

『17세기 후반 정통론의 강화와 자치통감절요의 보급』, 『한국사학사학보』3, 한국사학사학회, 2001.

44) 유탉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22면 참조.

본업자들인 田以采, 朴致維 등은 중인 신분이다. 앞서 완판본에서 전고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태인 지역을 토대로 완판본 간행 주체들이 대부분 중인 신분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중인 신분의 사람들도 전고를 잘 활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요컨대 ‘이념의 통속화를 통한 능동적 교화’가 사회 저변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소설의 정체성은 곧 다수의 작품으로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었던 영웅소설 개별 작품들의 형성과 변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영웅소설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변화나 변혁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적어도 명 멸망 이후 무너진 중화 중심의 질서를 대체하고 대신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이 조선이 될 수 있다는 문화적 자존감을 낮은 수준에서 동의한 상태에서 작품을 향유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모든 작품들이 궁극적으로는 중원의 질서를 수호하거나 회복하는 결말로 나아갔다는 점으로 증명이 된다. 서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작품의 이념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설인귀전>이 영웅소설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화소의 수용이나 서사 구조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설인귀전>은 영웅소설이 장르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었던 이념적 가치관을 부여해주었다는 점에

45) 『孔子通紀』, 『救荒撮要』, 『農歌集成』, 『大明律詩』, 『童子習』, 『事文類聚抄』, 『詳說古文眞寶大全』, 『史要聚選』, 『素王本紀』, 『新刊救荒撮要』, 『新編古今事文類聚』, 『增刪瀛洛風雅』, 『孝敬大義』. 서적 목록 및 태인간본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운수,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서지학연구』5·6, 서지학회, 1990; 유탁일, 『호남지방간행 방각본 연구(1)』, 『인문논총』20, 부산대학교, 1981; 유탁일, 『호남지방간행 방각본 연구(2)』, 『인문논총』23, 부산대학교, 1983; 민관동, 『《列國志》의 國內 수용양상에 관한 研究』, 『중국소설논총』13, 한국중국소설학회, 2001.

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이는 근대적 민족주의의 개념에서 보면, 중국의 문화적 자산 및 중국 중심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한국 고전소설의 대표적 장르인 영웅소설이 구조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민족국가의 주체적 정체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조선의 문화적 지형에서 이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지향일 수 있다. 또한 무능력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淨化의 의지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이데올로기 내적 비판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실 기득권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 구성원인 피지배계층은 체제 내적 淨化의 과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시각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기억할만한 혁명이나 변혁들이 모두 체제 내적 정화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처음부터 체제 전복적인 성향을 보였던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⁶⁾

46) 흔히 혁명이나 변혁은 기본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기실 혁명 혹은 변혁이 진행된 후에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겨지는 과정에서 보다 과대평가되면서 형성된, 실상보다는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혁명이나 변혁은 체제를 전복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이론화·개념화한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세계사의 가장 대표적인 혁명으로 명명되는 프랑스혁명조차도 그러하다. 흔히 프랑스혁명은 ‘앙시앵레짐(ancien régime)’이 等價의 개념으로 설명되면서, 마치 처음부터 구제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비판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혁명으로 이해되거나, 상당히 급진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혁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홉스봄의 다음의 언급이 이러한 정황을 잘 설명해준다.

‘교육을 받은 비전문가가 프랑스 혁명을 생각할 때 그의 머리 속에 주로 떠오르는 것은 1789년의 사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혁명력2년의 자코뱅공화국이다. 위엄을 부리는 로베스피에르, 밀통하고 있던 거구의 당통, 생-쥬스트의 냉정한 혁명적 우아함, 거친 마라,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및 기요틴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영상들이다. 1789년 미라보와 라파예트, 1793년의 자코뱅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온건파 혁명가들은 이름조차도 역사가들 제외하곤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져나가버렸다. 지롱드당은 하나의 집단으로서만 기억될 뿐이며, 아마도 지롱드당을 따랐던, 정치적으로는 무시할 만하지만 낭만주의적인 여성들 - 롤랑 부인(Mme Roland) 또는 샤를로트 코르테(Charlotte Corday) - 기억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에릭 홉스봄

보다 보편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실 중세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근대적 국가 개념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중화주의 질서를 그리워하는 조선인들은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족 개념을 인식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지금처럼 특정 국가가 상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평등의 논리가 ‘적어도’ 국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대사회와, 국가 간의 위계가 당연한 국제적 질서로 생각되었던 전근대사회는 그 인식의 구도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조선의 중화주의를 주체의 결여로 낮춰보는 것은 곤란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설인귀 및 <설인귀전>이 다수의 영웅소설에 영향을 끼친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19세기를 대표하는 역사서라 할 수 있는 『동사강목』과 『해동역사』 속 설인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당시 설인귀가 조선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로 인식되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주변 인물, 즉 당태종과 연개소문 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당태종에게는 우호적 시선이, 연개소문에게는 상당히 부정적 시선이 감지되

저, 정도영·차명수 역, 『혁명의 시대』, 한길사, 2002, 166면.

위 인용문을 통해서 보듯, 프랑스혁명에 꾸준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제도적 교육을 통해 대강의 맥락만을 파악하고 있는 교양인들에게 프랑스혁명의 기억은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잔상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실 프랑스혁명은 처음부터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었으며, 급진적인 것도 아니었다.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프랑스혁명이 1614년 이래 잊혀왔던 왕국의 봉건적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결정, 즉 국가를 재탈환하려는 귀족계급의 시도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또한 급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은, 1789년에 있었던 부르주아들의 요구가 잘 나타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을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나 평등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에 근거했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단 채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의 존재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요컨대 러시아혁명을 제외하면, 혁명은 처음부터 의도된 경우가 없었으며, 그 방향 또한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에릭 홉스봄 저, 정도영·차명수 역, 『혁명의 시대』, 한길사, 2002, 146-161면 참조.

었다. 기실 이는 한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기 조선이 갖고 있었던 역사의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화계승의식을 기반으로 문화적 주체라고 생각했던 조선은, 오랑캐 지역에 웅거했던 고구려보다는 중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나라의 시각에서 과거를 기억했던 것이다.

나아가 다른 영웅이 아닌 설인귀가 주목 받은 이유는 중화를 계승하고자 했던 조선의 입장과 설인귀의 처지에서 보이는 유사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설인귀는 변방 출신이지만, 중원의 위기를 구하는 영웅적 활약을 하는 인물로서, 그 모양새가 흡사 조선의 당시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설인귀전>이 화소의 차원은 물론 구조적 측면까지도 영웅소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영웅소설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이념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듯 영웅소설은 상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의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후기의 대중적 소설이었다. 따라서 영웅소설의 성행은, 비교적 폭넓은 계층의 조선 사람들이, 중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념적 통속’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Ⅲ. 결론

본고는 다수의 영웅소설 작품들에서 설인귀 및 <설인귀전>의 영향이 확인된다는 선행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왜 유독 설인귀가 영웅소설 서사에 반영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고전 문학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체로 서사적 수수관계를 살피면서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고는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윤리적 가치관을 통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설인귀전>

과 영웅소설이 성행했던 당시의 대표적 역사서들 속에 등장하는 설인귀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에 주목했다.

18·19세기를 대표하는 역사서라 할 수 있는 『동사강목』과 『해동역사』 속 설인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당시 설인귀가 조선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주변 인물, 즉 당태종과 연개소문 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당태종에게는 우호적 시선이, 연개소문에게는 상당히 부정적 시선이 감지되었다. 기실 이는 한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기 조선이 갖고 있었던 역사의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화 계승 의식과 문화적 중화주의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조선은, 오랑캐 지역에 웅거했던 고구려보다는 중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나라의 시각에서 과거를 기억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영웅이 아닌 설인귀였을까. 본고는 그 이유를 중화를 계승하고자 했던 조선의 입장과 설인귀의 처지에서 보이는 유사성에서 찾았다. 설인귀는 변방 출신이지만, 중원의 위기를 구하는 영웅적 활약을 하는 인물로서, 그 모양새가 흡사 조선의 당시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설인귀전>이 화소의 차원은 물론 구조적 측면까지도 영웅소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영웅소설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윤리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듯 영웅소설은 상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의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후기 대중적 소설이었다. 따라서 영웅소설의 성행은, 비교적 폭넓은 계층의 조선 사람들이, 중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른바 ‘윤리적 통속’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의 관계의 의의는 보다 더 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영웅소설의 형성과 전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윤리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이병도 역 『삼국사기』 전자자료.

『동사강목』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해동역사』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권도경,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전승의 역사적 변동 국면」, 『정신문화연구』 제30권2호(통권10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청계사학회, 2007, pp.3-31.

김윤수,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서지학연구』5·6, 서지학회, 1990, pp.355-401.

김준형, 「〈金僊覺〉의 발굴과 소설사적 의의」, 『고소설연구』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pp.139-167.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7, p.110.

루샤오팡 저,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역사에서 허구로 - 중국의 서사학』, 길, 2001, pp.1-263.

민관동, 「《列國志》의 國內 수용양상에 관한 研究」, 『중국소설논총』13, 한국중국소설학회, 2001, pp.165-191.

서대석, 「군담소설과 중국소설」,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302.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 〈소대성전〉·〈장익성전〉·〈설인귀전〉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2, 한국고전문학회, 1974, pp.35-64.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62·63, 국어국문학회, 1973, pp.165-183.

양승민, 「〈설인귀전〉의 소설사적 존재 의미」, 『우리어문연구』41, 우리어문학회, 2011, pp.389-413.

양운덕 옮김, 사회의 상상적 제도1, 문예출판사, 1994, pp.51.

엄태웅, 「〈소대성전〉·〈용문전〉의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의 변모 양상 - 축한정통론과 대명여리론의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1, 우리어문학회, 2011, pp.35-76.

에릭 홉스봄 저, 정도영·차명수 역, 『혁명의 시대』, 한길사, 2002, pp.146-161.

- 유탉일, 『호남지방간행 방각본 연구(1)』, 『인문논총』20, 부산대학교, 1981, pp.353-371.
- 유탉일, 『호남지방간행 방각본 연구(2)』, 『인문논총』23, 부산대학교, 1983, pp. 37-48.
- 유탉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p.22.
-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52-71..
- 이유진, 『<설인귀전>의 전승과 통속화 경향』, 『중국학연구』56, 중국학연구회, 2011, p.72.
- 이유진, 『설인귀전 이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1-112.
- 이윤석, 『<설인귀전> 이본고』, 『연구논문집』27, 효성여자대학교, 1983, pp.7-22.
- 이윤석, 『<설인귀전>의 원천에 대하여』, 『연민학지』9, 연민학회, 2001, pp.195-223.
- 정희진,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pp.72-73.
-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pp.1-380.
- 최호석, 『<설계전> 연구』, 『고소설연구』6,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281-303.
- 허태용, 『17세기 후반 정통론의 강화와 자치통감절요의 보급』, 『한국사학사학보』3, 한국사학사학회, 2001, pp.5-40.
- 허태용, 『17세기말~18세기초 존주론의 강화와 삼국지연의의 유행』, 『한국사학보』15, 고려사학회, 2003, pp.131-157.
-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pp. 171-214.

Abstract

The meaning of the awareness about Seol-in-gwi and the reflection
to literature in late Chosun dynasty

Eom, Tae-ung

<Seol-in-gwi-jeon> which originated from Chinese novel, affected Korean classical hero(heroine) novel. So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reason why so many Korean classical hero(heroine) novel accepted <Seol-in-gwi-jeon>. To achieve that, this research pay attention to the perception of history in late Chosun dynasty, 『Dong-sa-kang-mok』 and 『Hae-dong-yeok-sa』. In late Chosun dynasty history books, there were well-disposed recognitions to *Seol-in-gwi* that main character of <Seol-in-gwi-jeon>. *Seol-in-gwi* is also real person in Tang[唐] dynasty who attacked Goguryeo[高句麗]. Nevertheless Chosun people were friendly to *Seol-in-gwi*, and enjoyed <Seol-in-gwi-jeon>. This irony could occur because of sinocentrism in late Chosun dynasty. So many Korean classical hero(heroine) novel accepted *Seol-in-gwi* and <Seol-in-gwi-jeon>.

Key-words : <Seol-in-gwi-jeon>, Korean classical hero(heroine) novel,
Seol-in-gwi, Tang-Taejong[唐太宗], 『Dong-sa-kang-mok』,
『Hae-dong-yeok-sa』, popularization of ideology

엄태웅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6층 동양학연구원
(448-701)

010-9813-0423

ted0825@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